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재산 293억... 금융 공직자 '톱'

직계 가족이 중앙상선 운영... 대부분 주식 보유액 이창용 한은 총재 47억·김주현 금융위원장 31억 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재산이 거의 300억에 육박하는 등 금융당국 주요 수장들의 재산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산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의 경우 공직자 재산 신고 시 현재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공시가가 현 시가의 60% 수준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금융당국 수장들의 재산은 신고 가격보다도 최소 30% 정도는 더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3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신고액보다 1억7176만 원 상승한 293억7625만 원(이하 천 원 단위 반올림)을 신고해 금융당국 수장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았다.

김 부위원장은 작년 신고 당시 보유했던 상장 주식 대부분을 팔아치운 후 받은 돈을 예금으로 넣으면서 예금 자산이 3억 7242만 원 늘어났다.

김 부위원장의 신고 재산 가운데 대부분은 비상장사인 중앙상선의 주식(21만687주)으로, 2019년 2354만 원 상당에 달했다.

해운선사인 중앙상선은 김 부위원장의 직계 가족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47억4838만 원

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신고액 51억 5901만 원에서 4억1063만 원 감소했다.

이 총재가 본인 명의로 소유 중인 경북 구미시 고아읍 임야 평가액은 11억8575만 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또 이 총재는 본인 명의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연립주택(대지 727.0㎡·건물 174.20㎡) 임차권 9억5000만 원을 새로 신고하고, 자택 월세 임차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이 총재는 배우자 명의의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평가액이 15억7300만 원으로 9900만원 상승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본인(6억1957만 원)과 배우자(2억2982만 원) 및 장남(7611만 원) 명의의 예금도 신고했다.

예금 총액은 15억4291만 원에서 9억255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월세 임차보증금 지급에 따른 예금 감소분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작년 정기 신고 때보다 1억9624만 원 늘어난 31억868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억7728만 원 오른 영향이 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재산은 작년 대비 492만6000원 줄어든 18억6239만 원이었다.

금융 공공기관 수장들의 재산을 살펴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에 2023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왼쪽부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미나 기자·뉴시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에 2023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왼쪽부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미나 기자·뉴시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에 2023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왼쪽부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미나 기자·뉴시스

면 강석훈 산업은행장은 작년 신고 당시보다 2836만 원 줄어든 28억6006만 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1억4616만 원 늘어난 26억7724만 원을,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3억4894만 원 오른 23억7747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1055만 원 줄어든 39억9986만 원을,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1억6690만 원 감소한 47억 311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편, 이승현 한은 부총재의 재산은 16억 967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5281만 원 늘었다.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다가구 주택(281.36㎡·8억6500만 원)과 본인 소유 경기 의왕시 내손동 포일자이아

파트 전세(5억1450만 원) 등이 포함된 재산이다.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기준급리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67억194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서영경 위원이었다. 서 위원은 작년보다 재산이 7억6214만 원 늘어났다.

서 위원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우성4 아파트(157.74㎡)의 평가액은 25억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000만원 올랐다.

이 외에도 본인과 배우자 및 차남 명의의 예금이 29억5340만 원에서 30억4886만 원으로 증가했다.

서 위원 다음으로 한은 금통위원 중 재

산이 많은 사람은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한 조윤제 위원이다. 조 위원의 재산은 63억5463만 원으로, 작년 대비 4억5073만 원 감소했다.

조 위원과 배우자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땅(367㎡·9억3035만 원) 등 12억865만 원 상당의 토지를 갖고 있다.

조 위원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단독주택(대지 701㎡·건물 326.2㎡)의 평가액은 27억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7200만 원 상승했다.

조 위원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은 24억 6390만 원에서 23억8428만 원으로 감소했다. 조 위원은 신탁자산 가치 하락 및 생활비 지출 등으로 예금이 줄었다고 밝혔다.

임진영 기자 jyim@skyedaily.com

하나銀, 구조 개선 통해 중기 경영정상화 지원

하나은행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함께 30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진공이 금융기관과 협력해 일시적 경영 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돕고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하나은행과 중진공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활성화와 경영 애로 중소기업 대상 경영개선계획 수립 및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협력 은행은 10 곳으로 증가했다.

한편, 중진공은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중소기업 106곳에 382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예산을 450억 원 규모로 더욱 늘렸다.

임진영 기자 jyim@skyedaily.com



신한금융, 데이터센터 100% 재생에너지 추진

"카드·투자증권 등 주요 계열사 올 상반기 REC 계약할 것"

신한금융그룹이 경기도 용인 그룹 데이터센터의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신한 디지털 RE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녹색프리미엄-PPA(전력구매계약)자가 발전 등으로 전력을 충당하고, 그룹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연간 2만 2천

톤의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방침이다.

한편 앞서 신한은행은 29일 국내 은행 최초로 한국동서발전으로부터 5년간 재생에너지를 받는 REC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신한카드와 신한투자증권 등 신한금융그룹 내 주요 계열사들도 올 상반기 내로 REC 계약에 나설 계획이다.

임진영 기자 jyim@skyedaily.com



29일 정상혁(왼쪽) 신한은행장과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계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한화생명·손보, 인니 리포 손해보험 인수

한화생명이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인도네시아 리포 손해보험의 지분 62.6%를 인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이 47.7%, 한화손해보험이 14.9%를 인수하는 조건이다.

리포 손해보험은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업계 14위 업체로, 건강·상해보험 판매 기준으로는 시장점유율 2위 기업이다.

이번 인수를 통해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은 현지 보험사의 수평적 통합을 기



한화생명·한화손해보험이 인도네시아 보험사 '리포'를 인수했다. 한화생명

반으로 생보사와 손보사를 모두 아우르는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방침이다.

임진영 기자 jyim@skyedaily.com

예상치 못한 사고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해보험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